

# “비행기 회항할까 봐”... 공포 속 카타르 탈출

### 3년 전 직장 구해 제주→ 중동으로 떠난 박씨 긴급 항공편 이용 카타르 도하 출발 한국으로 중동 체류 도민 현황 감감... “네트워크 없어”

“중동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불안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와 비행기가 회항하지는 않을지 계속 걱정됐어요.”

최근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긴급 항공편(도하-인천)을 통해 귀국한 박 씨는 카타르 도하에서 보낸 지난 며칠을 이렇게 떠올렸다.

박 씨는 약 3년 전 직장을 구해 제주에서 카타르로 건너가 현지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카타르 영공이 폐쇄되자 일상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다.

휴대전화를 통해 수시로 울리는

재난문자와 하늘에서 들리는 ‘평’ 소리는 불안을 더욱 키웠다. 박 씨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언론을 검색했고 도하에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할 때마다 무서워 잠을 제대로 이루질 못했다”며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웠다”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박 씨는 언제든 귀국할 수 있도록 비상 짐을 미리 챙겨두고 생활하기도 했다. 일부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육로 이동해 다른 국가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육로 이동에만 7시간 이상이 걸리고 차량을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데다 사고 피해 우려까지 생각하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주에 있는 가족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현지 상황은 어떤지,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통화 때마다 물었다”며 “혹시라도 영공이 열리면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가족들이 계속 항공편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했다.

외교부로부터 긴급 항공편 탑승 관련 연락을 받은 뒤에도 긴장은 이어졌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약 1시간 전에도 현지에서 또 긴장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사히 도착한 공항 역시 귀국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현장 구매 창구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공항 곳곳에는 초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씨는 “비행기에 올라탄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중동 영

공을 벗어날 때까지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와서 가족들 얼굴을 보니 그제야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체류 제주도민 공식 집계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는 제주 출신 도민 네트워크나 별도의 한인회 조직이 없어 체류 도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경우 제주 출신 도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외교부 동향을 확인하거나 현지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을 전해 듣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이며, 현지 체류 국민 보호와 귀국 지원은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기자

## 제주 3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회’ 출범

제주대·한라대·관광대 참여

13일 ‘대학생유권자 행동’ 회견

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총학생회가 연대한 ‘제주지역 총학생회 연합회’가 출범했다.

11일 제주지역 총학생회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대학교에서 공식 출범식이 개최됐다. 연합회는 도내 3개 대학 총학생회가 중심이 됐다.

연합회는 앞으로 도내 대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제주 4·3 관련 청년 정책 제안, 대학 간 스포츠·문화 교류전 개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기 교류 등에도 협력한다.

첫 공식 행보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 대학생유권자 행동’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여는 회견에서 청년 유권자 자격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연합회 의장은 양유준 제주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양재혁(제주대 부총학생회장), 고나운(제주한라대 총학생회장), 현황빈(제주한라대 부총학생회장), 윤시현(제주관광대 총학생회장), 노해인(제주관광대 부총학생회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지은기자

## 실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실력 겨룬다

도교육청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공모는 학생, 일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 부문은 ‘인공지능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초·중·고·고등학생),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기획’(중·고·고등학생) 분야로 진행된다. 대학생과 교직원, 공무원 등 만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일반 부문은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기획’ 1개 분야의 작품을 받

는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 단위로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대회 참가자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제미니(Gemini 3.0), 비오(Veo 3), 나노바나 등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권’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이용권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작품 접수는 5월 한 달간이다. 신청은 일반 부문은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기획’ 1개 분야의 작품을 받

김지은기자

## 제주시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

27일부터 거주지서 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서비스

제주시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

난해 11월 ‘의료통합돌봄 TF팀’을 신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나섰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자원을 연계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지원원팀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해녀항일운동 기념식

제주도 주관 행사 격상

15일 해녀박물관 일대서 개최

올해부터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이 제주도 주관 행사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야외 해녀광장에서 제94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단체가 주관하던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은 제주도 주관으로 변경됐다. 기념식 슬로건은 ‘그날의 파도를 기억합니다’로, 해녀들이 거친 바다와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연대와 용기로 항일운동에 나섰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기억으로 되새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념영상 상영, 독립유공자 후손 편지 낭독, 도시사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유채꽃 반겨주는 제주의 초봄 11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도로변 유채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며 제주의 봄 정취를 한껏 즐기고 있다.

## “제주돌불축제장에서 묘목 나눠요”

14일 새별오름 축제장... 1인당 2본씩 4400본

제주돌불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축제장인 새별오름 광장에서 ‘새봄 새 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가 열린다.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시는 이날 묘목 4400그루를 1인당 2그루씩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제공되는 묘목은 단감, 미나사

과, 사과대추, 왕자두, 황칠, 허브 등 6종이다.

묘목 나눔은 ‘새봄, 새 희망’을 상징하는 행사로,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나무 심기 시인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제주전통음식  
신한에코 푸드사업부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게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